

◆ '94年度 第1次 理事會 開催 ◆

韓國電機工業振興會 1994年度 第1次 理事會가 '94. 2. 16(水) 11:00 무역회관 무역크럽에서 재적이사 20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이날 理事會는 오는 2月 28日 있을 定期總會에 앞서 '93年度 收支決算 承認(案)과 '94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案), 任·職員 給與規程 改正(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9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고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사업과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94년도에는 振興會 자립기반 확립과 중전업계 발전의 계기가 될 「서울 국제종합 전기기전」을 비롯하여 세계시장 개방화에 대비코자 선진국 중전기기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기술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중전기기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도에 이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중전기 산업을 2천년대 세계 8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서 「21세기를 향한 중전기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업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나 불합리한 구매제도의 개선활동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게 된다.

SIEF '94 日本 電機業體 유치차 訪日

韓國電機工業振興會 任寅柱 常勤副會長은 지난 1月 31일부터 2月 8일까지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SIEF '94)에 일본의 우수한 전기업체를 다수 참가시키기 위하여 동경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각 기관 및 전기관련 단체, 업체등을 방문하였다.

이번 訪日은 올 7. 5~7. 9 개최되는 제1회 서울국제종합 전기기기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가장 크고 기술교류등 관계가 밀접한 일본지역의 중전기 관련 업체 및 바이어들의 많은 참가와 참관이 중요한 점을 감안, 특별히 유치 활동을 벌인 것이다.

任 부회장은 이번 訪日 기간중 일본의 종합 중전기 메이커인 도시바, 미쓰미비, 마쓰시다 전 공, 구보다 등 우수한 전기업체 20여개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기공업 수준의 향상과 향후 발전상은 물론 이번 개최되는 국제전의 배경과 규모등을 홍보하고 일본 업체의 참가와 관련 바이어들의 참관을 적극 권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전기관련 단체인 JEMA(일본전기공업회)와 NECA(일본전기 제어기기공업회)를 방문, 앞으로 양국 단체간 정보 및 자료교환 등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할 것 등도 협의하였다.

한편, 이번 방일기간 동안에는 각 단체 및 업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보자료를 다수 입수, 자료실에 비치하였다.

■ 입수자료 목록 ■

- 電氣年鑑 (1994) - (社)일본전기협회 발행
- 센다이, 동경,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현황 - KOTRA 무역관 발행
- NECA TODAY - 일본전기제어기기공업회 발행
- 검출용 스위치 개요 - 일본전기제어기기공업회 발행
- 조작용 스위치 개요 - 일본전기제어기기공업회 발행
-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개요 - 일본전기제어기기공업회 발행
- 제어용 릴레이 개요 - 일본전기제어기기공업회 발행
- 표준가격표 - KAWAMURA 발행
- 동북경제월보 - 동북경제 연합회
- 일본의 전기산업 - 일본전기 공업회
- 일본 중전기 제조업체 명단 - 일본전기 공업회
- 기타 방문업체 및 단체 카탈로그 및 월보